

뉴스레터 (제 8호) 원고

작성자 : [REDACTED]

작성일 : 2015. 8. 17.

Newsletter No. 8

사이버포래상담실/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REDACTED] || 02-6348-1318 || 010-3232-1318 || [REDACTED]

■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활동기_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REDACTED] 변호사

2015년 3월 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14살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살해되었습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단법인 탁틴내일 등 여성·청소년 인권단체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십대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사건에 분노하고, 그 뜻을 한데 모았습니다.

비록 즉각적인 대처는 늦었지만, 공동 대책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 하면서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고, 더 이상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차 대책위 모임부터 함께하면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함께 대응해 줄 단체가 있을까, 우리의 목소리에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십대 성매매’ 영역은 인권(人權)의 사각지대입니다. 한 해 20만명의 가출 청소년 가운데 적어도 절반은 생계를 위한 조건만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출해서 갈 곳이 없는 데다 먹을 것이 떨어진 십대 여성 A는 또래 언니의 권유로 채팅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모텔에 성매수 남성과 함께 들어갔고, 성매수 남성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폭행과 협박을 수반하여 성관계를 하지만 이미 성관계 자체에 대한 동의를 한 A는 걸로 거부 의사를 표시나 반항을 하지 못합니다.

현장에서는 이와 같이 성폭력과 성매매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에서 성매매로 인지되는 순간, 십대 여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부과대상이 되어 성범죄피해자 지원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해바라기센터 진술조력인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수한 성폭력 지원단체, 상담소, 쉼터도 모두 그녀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관악구 성착취 재발방지 공동행동’ 만큼은 큰 희망을 건네주었습니다. 5월 20일 공동성명서 발표와 동시에 여성·청소년 인권단체 106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을 하면서, 공익법률단체에서 아동·청소년 영역에서 활동하다 보니, 참 많은 십대를 만납니다. 비록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소년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착취 피해로 15살에 원치 않은 출산을 하여, 갓 돌이 된 아이를 업고 찾아 온 의뢰인이 저를 처음 만난 날 건넌 말입니다. “선생님, 저 이제 처벌 받나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긴 인생에서 잠시 스쳐가는 사람이지만, ‘나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피해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도 청소년을 만나러 갑니다. 귀한 기회를 주신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드리며, 부족한 글을 마칩니다. 끝.

■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1인 시위]

2015년 3월 27일 관악구 모텔에서 14세 소녀가 성매매에 이용되어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및 성매매 이용으로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접하며 청소년성매매는 성착취임을 우리사회가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더 이상 이 같은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려 합니다. 본 살해 사건의 대응만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문제 제기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공동행동'에서는 2015년 6월 5일부터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8월말 현재 총 61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공동주관 단체로는 (사)관악교육복지네트워크, (사)두루, (사)들꽃청소년세상, (사)탁틴내일,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사)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재)동천,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상을품은아이들, 수원여성의전화, **십대여성인권센터**,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다시함께상담센터(총 17개 기관)이고, 현재 106개 단체가 참여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공개처리

[공판참관]

관악구 14세 소녀 살해사건이 일어난 후 세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공판, 두 번째는 알선자공판, 세 번째는 모텔업주공판입니다.

가해자 공판은 총 9차례 진행되었으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우리사회가 돌보지 못 했던 10대 피해자가 무참히 살해되고 짓밟혔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20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최종 선고 공판은 9월 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선자 공판은 총 6차례 진행되었으며 알선자 3명 중 1명은 징역 10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960만원, 수강명령을 받았고, 1명은 징역 7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196만원, 수강명령을 받았으나 나머지 1명은 혐의를 부정하여 아직 공판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모텔업주 공판은 대한여성변호사회에서 고발한 상태이며 현재 경찰 수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신림역 아웃리치]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15년 4월 30일 (목)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신림역 인근에 위치한 모텔을 중심으로 본 센터의 홍보물품과 웹전단을 나누어주며 센터 홍보, 알선자·구매자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였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계획하게 된 계기는 관악구에서 발생한 성매매상황에서 한 소녀의 죽음 때문으로 신림역 인근의 수많은 모텔에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성매매 피해 청소년과 성인 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홍보하였습니다.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공동성명서]

http://www.10up.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f_cate=&idx=405&board_md=view

[공동행동 서명 창]

http://www.10up.or.kr/_mng/popup/popup.asp?idx=2

■ 6기 사·또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6기 사·또 입니다.

성매매 피해여성분들이 피해자임에도 어디 한 곳 속 시원하게 하소연 할 때가 없음을 느끼고 있는 중에 십대여성인권센터를 만났어요. 상담원이 되기 위한 양성교육들로 성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인턴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무에 대한 교육들도 받았어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좋았어요. 위안부 할머니들도 뵙고 국회에 가서 비서관님, 의원님, 입법심의관님을 뵙고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서 좋았어요. 다음에도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다른 아이들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책을 추천받아서 즐겁게 읽었어요. 이 글을 보신 분들도 한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의 저자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 책에 대한 느낌을 정리하고 나누는 과정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MMPI 심리검사도 했었어요. 질문이 너무나 많았지만 힘내서 다 끝냈을 땐 묘한 성취감도 느껴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좋았어요. 저는 피해여성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십대여성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상담원으로서의 배움을 받으면서 “쉬운 일 만은 아니구나!”라는 것도 느껴요.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아 쑥쑥 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이버도래상담원 양성교육·인턴쉽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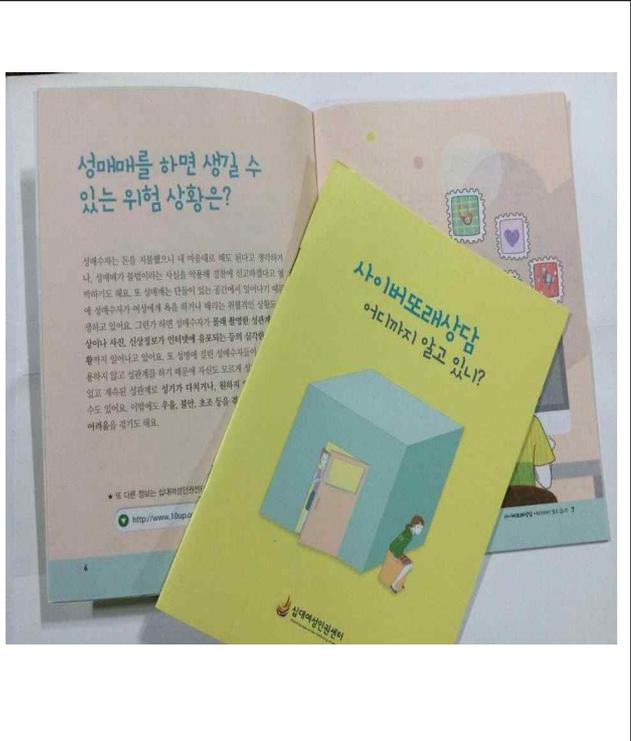
사이버도래상담원은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사이버공간에 직접 개입하여 성매매피해 조기에방, 성구매자와 알선·조장세력에 대한 경고, 신고활동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포래상담원의 양성은 상담원의 전문성을 고양시켜 인터넷성매매를 방지하는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건강한 일자리 제공의 장입니다.

<http://www.10up.or.kr/load.asp?subPage=212>

■ 활동소식

「사이버포래상담 어디까지 알고 있니?」 홍보책자 발간
 2015년 7월, 「사이버포래상담 어디까지 알고 있니?」란 제목의 홍보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이것도 성매매예요?!’, ‘성매매를 하면 생길 수 있는 상황은?’, ‘지금 박인데, ‘그냥’ 재워준다고요?’, ‘재밌는 대화, 한 번쯤은 괜찮죠?’ 등의 주제로 십대의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용어와 알기 쉬운 사례 조건 만남 등의 성매매 위험 상황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에 대한 내용, 사이버포래상담실에서 연계 가능한 쉼터, 일시보호소의 안내, 심리·법률·의료지원의 다각적인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청소년들이 정보가 없어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책자를 원하시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십대로 연락주세요!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15 평화의 사람책 도서관]
 2015년 6월 20일 (토) 사단법인 조각보와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7개 단체가 공동주최하여 국립현충원에서 “평화의 사람 책 도서관”을 개최하였습니다. 북한 함경도에서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 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로 아버지를 잃은 70대, 북한이탈주민 청년 등 9명이 전쟁과 남북분단을 주제로 본인들이 겪으신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며 사람 책으로써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redacted] 대표는 통일의 초석은 어떤 정책이나 몇몇 정치인의 결정이 아닌 편견의 해소와 아픔에 대한 공감이라며 더 많은 사람 책 발굴로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또한 전쟁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픔을 공감하고 편견을 해소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비공개처리

<p>[십대 비밀공간! 상담실이 모습을 드러내다!] 한국여성재단에서 진행하는 <공간문화개선 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여성 시설과 비영리 여성단체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치유와 삶의 변화를 지원해주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총 84개 여성 시설 및 비영리 여성단체를 지원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번 2015년에는 십대여성인권센터도 지원을 받아 상담실을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상담실이 !!!!</p> <p>십대여성인권센터가 상담실을 리모델링하게 된다면, 거리를 방황하거나 유흥가를 떠돌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본 센터의 상담실을 시작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시각을 전문화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성매매와 관련한 전문 상담소가 청소년분야에 속하거나 성인 성매매지원분야에 귀속되지 않고 청소년 성매매피해지원의 고유한 전문성을 가진 분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p>	<p>비공개처리</p>
<p>[청소년성장캠프-희망키움과정]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지난 5월 31일~6월 5일 ‘청소년성장캠프’ 를, 7월 23~25일, 7월 28~30일 2회에 걸쳐 ‘희망키움과정’ 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연속된 일정으로 인해 실무자들은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지만 각각 ‘직업체험’, ‘심리치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 프로그램에 만족감을 느끼는 참여자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미술사 체험, 적성검사, 잡월드, 꽃꽂이 등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1차 캠프에는 무려 8명이 참여하였고 캠프 내내 높은 참여율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차 캠프에서는 비록 4명이 참여를 했지만 소시오드라마, 정신과전공의가 진행하는 심도 있는 집단상담을 통해 참여자들의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2차 캠프 참여자들과 실무자들이 함께 개사한 캠프권장 주제곡 ‘캠프파괴자’, 들어보실까요?</p>	<p>비공개처리</p>

<p>[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협력 주안 아웃리치 및 캠페인]</p> <p>7월 31일 (금) 주안역에서 이루어진 아웃리치는 성매매 신고포상금 제도를 알리고 청소년성매매 근절을 위한 캠페인 이었습니다. 이 아웃리치의주요 성과는 성매매근절을 위해서 일하는 청소년 단체뿐만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소년부, 인천남구청 여성정책과, 인천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남부경찰서, 인천여성의전화가 함께 민관협력을 통해서 성매매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p> <p>1부에서는 인천 주안역 인근에서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촉구 서명과 거리 캠페인을 하였고, 2부에서는 주안역 인근 모텔, PC방, 업소 등을 본 센터와 지역경찰들이 함께 정보제공 및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한 홍보로 진행하였습니다.</p>	<p>비공개처리</p>
---	--------------

■ **짧막소식**

-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으로 사단법인 들꽃청소년세상 ■■■ 대표님을, 전문위원으로 ■■■ 동양공전 기계공학부 교수님을 새로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더욱 전문적인 영역으로의 십대! 내실 있는 십대! 가 될 것입니다^^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십대가 지정되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원활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반기 정책회의가 7월 14일 (화) 성공회대 대학원 미가엘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의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책회의 뒤풀이도 어마어마하게 진행되었답니다.

-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좋은 삼촌’ 으로 접근하여 성추행 및 성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을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와 함께 고발하였고, 2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들을 거친 후 가해자는 아청법위반 강간미수 강제추행으로 징역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전자발찌 10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긴 시간동안 끝까지 피해사실을 일관적으로 진술한 어린 피해자들의 용기에 다 같이 칭찬과 박수!!!

- 실무자들이 한번쯤 고민해봤을 청소년기의 정신과적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열린교육” 을 기획하였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 선생님의 강의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총 13개 유관단체들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십대가 되겠습니다.

■ 후원자 명단 (5월~8월)

<CMS>

[Redacted]

<계좌후원>

[Redacted]

<물품후원>

[Redacted]